

社說

시민대중 어떻게 할 것인가?

포천시민대중 제작 문제를 놓고 추진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대중제작이 포천시민으로 봐서 좋다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당장 철회해야 한다면 해야 할 사안이다.

먼저 양측에 극단적인 표현 혹은 흑백논리는 지양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

반대하는 측의 주장대로 종하나 제작한다면 줄어들고 있는 관광객이 급증한다거나 뭔가 대단한 문화유산을 남기는 것도 아니다. 또 시 승격을 기념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작하고 자신들의 이미지 상품으로 만들고 있는 종을 포천에서 제작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도 안 된다. 종 제작을 반대한다면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을 불우이웃들에게 지출하면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거나 혹은 반강제적으로 모금하기 때문에 종 제작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달리 말하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회간접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

추진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 모두 포천시민으로서 포천의 현실을 고민하고 포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무관심한 시민들보다 포천 정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양측의 주장 또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포천의 현안문제 혹은 장기 미래비전은 일단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숲만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일의 시작은 거창하지만 내용이 없게 마련이다. 또 숲은 못보고 나무만 보는 사람은 나무 몇그루가 고사했는데 숲 전체가 죽어간다고 말할 것이다.

시민대중 제작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그리고 포천시민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 추진위와 대척위 관계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시민대중 제작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기관단체장이나 읍면동에서 종 제작을 일괄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시 승격을 기념하거나 혹은 문화유산, 관광자원을 개발하려고 했다면 공청회 혹은 토론회를 통해 최소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시민들의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이나 시민대중 제작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니냐고 싶다.

반대하는 측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남의 말을 인용해 종 제작의 부당성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 또한 함께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반대하는 측에서도 몇몇 단체만 모여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성이 담보된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정한 시민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

시민대중 제작 유무는 먼저 객관성을 담보하는 제3자가 개최하는 토론회 혹은 공청회 같은 시민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도 찬반 양론이 결정이 나지 않으면 포천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제2기 자문위원회 임원진 전원 유임키로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제17차 임원회의

포천신문 자문위원회(위원장 양주승)는 지난 8일 12시 제17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임원진 임기에 관한 건 등 4개 안건을 처리했다.

최호열 발행인을 비롯해 양주승 자문위원장, 김인만 고문, 송승채 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임원회의는 위원장 인사말, 발행인 인사말, 회의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백한창(경북대학교) 백한창 정형외과 원장, 하재인(포천농협 이사), 박운중(박운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관식(경북대학교수), 남궁중(포천시산림조합)씨 등을 신입 자문위원으로 위촉승인했다.

또 자문위원회 임원진 임기에 관한 건에서 제2기 임원진의 전원 유임을 의결하기도 했다.



포천신문 자문위원회는 지난 8일 12시 제17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임원진 임기에 관한 건 등 4개 안건을 처리했다.

또 오는 9월26일 오후6시에 9월 정기회의를 통해 신입위원 위촉과 전달과 임원진 승인 추인의 건 등을 처리하고 오는 11월3일 추계순회 대회를 개최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구독자 확보방안, 아름다운 이야기 다량게재, 지역정통지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동전모이기' 운동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제7차 정기회의

포천신문 (단장 임경순) 제7차 정기회의가 지난 8일 오전10시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임경순 단장을 비롯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임경순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며 "모든 단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 사발공과 제보 등 주부명예기자로써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사랑의 동전 모이기에는 20여명이 참가했으며 보다 조직적이고 다양하게 추진키로 했으며 특히 차안에 남아있는 동전 모이기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포천동지부 박해자 지부장은 큰 패지저금통을 들고나와 차 안에 있는 동전은 물론이거니와 집안에 여가지가 흩어져 있는 동전을 모아 50만원이 되면 모금함에 넣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가산면지부 김선애 지부장은 식당이나 금융기관 등 대중이용 장소



포천동지부 박해자 지부장이 사랑의 동전모이기 패지저금통을 보여며 기적할 때까지 모금함에 넣겠다고 밝혔다.

에 작은 힘을 만들어 비치하여 사랑의 동전 모이기 운동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내촌면 지부 김순희 단원은 최근 효도공부반을 운영해 한글을 교육하는 봉사활동을 매주 1회씩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주부명예기자단 위촉식에 이어 발표한 소감에서 신입단원들은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는데 위촉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옥석 ▶오은영 ▶용영자 ▶고효순 ▶이명희(이상 가산면) ▶김순미 ▶이영숙 ▶조선희(이상 선단동) 지혜복 기자 94spice@hanmail.net

郷土원로초대석 ⑪ ..... 6·25 참전 포천시지회장 李金鍾



이금중

6·25 참전 포천시지회장

"6·25 참전용사들은 평균 연령 75세로 24만여명이 살아 있습니다. 이들은 평균 5명중 3명은 병마와 시달리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라서 5년 정도가 지나면 거의 죽거나 활동도 못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회원들 중 10% 정도는 그래도 지적 또는 자손들의 덕으로 살고 있으나 나머지 90%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체지하에 태어나 광복기까지 배

양문리에 6·25참전기념비 세워 전쟁의 의미 되새겨

고령화사회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해야

우지도 못하고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여 자외선 타외된 전황에서 나아가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제대하여 귀향해보니 먹을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시대에 먹고살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해 왔으나 돈도 권세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난의 대물림으로 자손들로부터 존경은커녕 원망의 세월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돈도 권세도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필요가 있었습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가닥 희망은 국가유공자라는 명예만이라도 얻는다면 죽은 유이라도 자손들로부터 그래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아버지, 할아버지의 공적을 칭송할 것으로 생각하여 국가유공자 증서 한 장을 죽기 전에 받기를 원할 따름입니다."

6·25참전 포천시지회 李金鍾(75.사진)지회장이 건넨 '국외의원남동'에 드리는 글'의 서두로 6·25참전용사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이 글에서 6·25 참전용사들은 정부가 전쟁을 통해 다친 자, 죽은 자 위주로 국가유

공자 대우를 해왔으며 1등 공신은 죽은 자도 부상당한 자도 아니고 오직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끝까지 완수한 살아남은 자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6·25참전용사들이 제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초안)대로 개정된다면 국가제정이 늘어나지 않으며 명예만 국가유공자로 대우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일을 위해 이 지회장은 며칠전 지역국회의원을 방문하여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지회장은 지난 51년 11월 22세의 나이로 군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가해 57사단 수도사단 헌병대에서 전역할 때까지 조국을 위해 헌신적인 복무를 했다.

강원도 정선이 고향인 이 회장은 군대생활을 주로 관인과 이동에서 하게 되어 전역 후 이동면에 거주하는 계기가 된다. 이후 포천에 나와 단근방부터 시작해 오늘날 집을 마련하고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기 까지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열심히 살면서 투철한 국가관을 갖고 전쟁 없는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있는 이 지

회장은 1950년7월14일 오성산 전투에서 1개 연대가 전멸할 당시에 45명만의 생존자중 한 사람으로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 지회장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6·25참전기념비를 제작해 영종면 양문리에 세웠다고 한다.

"이 기념비를 보면서 국가안보를 되새기는 역사의 장으로 삼기를 기대한다"며 이 지회장은 "영종면 양문리는 6·25전쟁당시 포천지역의 최초의 전적지로 6·25전쟁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부모에게 잘하고 여튼을 공경하며 후배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줄 것을 자녀들에게 교육해왔다는 이 지회장의 건강비결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적당한 음주라고 한다.

이 지회장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으나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없어 소일거리가 없다며 소일거리와 약간의 용돈만 준다면 얼마든지 일할 노인들이 많다고 강조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조대행

동남고등학교 교장

포천초등학교와 포천중학교, 포천고등학교를 나와 고려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육군중위로 군복무를 마친 후 지난 77년 동남고등학교에 과학교사로 발령 받아 1991년 중등교감 자격 취득, 1996년3월 1일 동남고등학교 교감, 1998년7월1일 동남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동남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해 온 조대행(56.사진)교장은 "교육은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동원학원(이사장 복영자)이 운영하는 동남고등학교는 교사제도에 있어서 투명한 원칙을 견지하여 실력 있는 교사를 확보하여 실력 있는 학생을 육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들이 소신을 갖고 수업을 하고 학교가 꾸준히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동일 프로그램을 장기간 실시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의 장점을 살려 포천의 명문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고 한다.

동남고등학교에서 그동안 재직하면서 조 교장은 80년 한국보이스카우트 지도자 표창, 1982년 경기도교육감 표창(우수교사), 87년 포천군수 표창(학생 민방공훈련 지도 우수교사), 88년 교육부장관 표창(생활지도 우수교사), 90년 경기도교육감 표창(초청 장학지도 우수교사), 90년 한국보이스카우트 총재 표창(우수 지도자), 93년 제12회 스승의 날 기념 특별공로상(경기도교원연합회), 97년 경기도지사 표창(청

백봉기

송이산업 대표

경남 산청군 출신으로 지난 73년 상경해 직장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84년도에 포천과의 인연을 맺고 95년도에 사무용 상판을 생산해 온 송이산업 백봉기(56.사진) 대표를 만났다.

17명의 직원이 원자재를 14개 공정을 거쳐 사무용 상판을 생산하고 있는 송이산업은 제품을 주로 국내에 납품하고 있다. 최근 중국산 제품이 밀려들어 마진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백 대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실정이 매우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품질도 승부를 걸고 있다고 한다. 더욱 정교한 작업과 공정을 거쳐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 공정을 다시 기획하고 연구하는데 열정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가구업계 특성상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후발업체들이 모방하여 너도나도 같은 제



백 대표가 포천신문과의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최호열 발행인과 지난 95년도 첫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지난 2003년 포천신문 운영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면서 '샘물처럼 깨끗한 신문' 발행에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의 어느 지역신문보다 더 나은 규모와 더 많은 소식을 담은 신문인 포천신문이 추진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盡人事待天命’을 교육철학으로 삼아 최선의 노력 ‘주위의 포천신문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평 반갑다’

이같은 노력의 중심에 선 조 교장은 '盡人事待天命'(진인사대천명)을 좌우명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퇴학당하면 전학해오는 학교로 알려져 있었던 동남고등학교가 포천의 명문고등학교로 위상이 제고된 것은 무엇보다도 학교 교육과목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교법인 동원학원의 대담한 지원은 무엇보다도 동남고등학교를 실력 있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교장은 심화반을 운영하여 수준별 학습을 실시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수준별 학습을 조 교장은 몇 년 앞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심화반 운영의 결과는 2000년도에 서동원 학생의 서울대학교 입학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서울 시내 우수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실력 있는 학생육성은 물론 다양한 체험교육을 위해 3월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1학년 담임이 3학년까지 담임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바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또한 사립학교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는 요인이

소년건전육성), 2003년 벤처스카우트 공로장 동장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 교장은 지난96년부터 98년까지 포천시 교원총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1999년3월부터 현재까지 포천시 중등교감협의회장, 2002년3월부터 현재까지 포천시 스카우트 연합회장, 2005년7월1일부터 현재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또 지난 2002년5월부터 현재까지 포천신문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며 현재는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처음에는 신문사 자문위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졌지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포천신문이 정론지로서 포천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매체라는 사실에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조 교장은 교육자로서 학교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포천신문 자문위원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변에서 포천신문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평이 반갑다"며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보도는 전문가들의 고무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기업의 자체 브랜드 개발에 정부 나서야 샘물처럼 깨끗한 신문 계속 발행해야

품을 생산함으로써 가격인하의 원인이 되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브랜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생산업체 현실에서는 어렵게는 아니다. 후발업체들의 모방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각 사 브랜드화가 불가능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각 사가 보유한 고유 브랜드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각 업체들이 마음놓고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백 대표는 아름다운 송이와 같은 송이산업 육성을 위해 '내 가족처럼'을 사훈으로 삼아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함께 살아가는 정신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평소 '정직'을 생활신조로 삼아 '내가 한번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다. 불우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는 포천신문의 모습에 많은 뜻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포천신문이 현재 심각한 포천의 교통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보도하여 포천시의 고질적인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포천시민을 위한 신문발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

백 대표는 또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별로 운영위원을 순회방문하여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통해 더욱더 포천신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름돋을생환안전협의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 대표는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포천신문 운영위원회가 보다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딱딱한 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윤이용 위위장과 잘 의논하여 꼭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본지 조사위원회 제9차 임원회의

본지 조사위원회 제9차 임원회의가 지난 8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최호열 발행인과 김중현 조사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범 청수면 지부장은 시민들은 매년 돼지풀 제거작업을 실시하는데 올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포천시 예산수입 여부 및 사용자 등 예산 편성 현황을 취재, 보도해 달라

말했다. ▶김명렬 포천동 지부장은 신원동에 거주하는 박재국씨는 자선 어려운 생활고를 당하면서도 불우이웃돕기 앞장서고 있다면서 미담사례로 취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현자 강사는 송우교회에서 15명이 참가이사회를 구성해 매월 일정금액을 지출해 선다·가산·소흘지역 독거노인을 돕고 있다며 미담을 제보했다.

지혜복 기자 94spice@hanmail.net



본지 조사위원회 제9차 임원회의가 지난 8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바로잡습니다

본지 조사위원회 내촌면 지부장 김기중 조영현 지부장을 조영현 지부장으로, 김영중 총무를 김영창 총무로 바로잡습니다.

Publication information box for Pocheon News,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a list of board members.